

반려동물 특화 캠핑장 ‘인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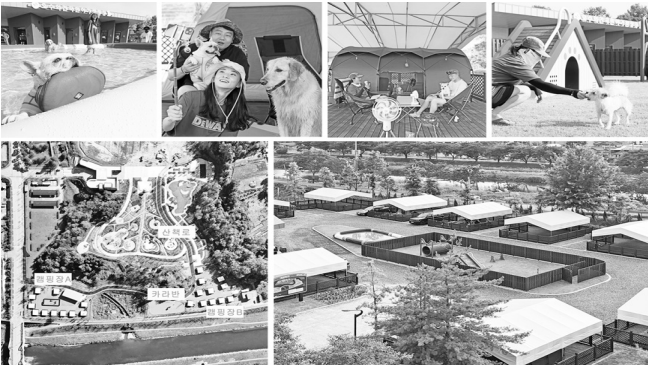
임실군,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다시 찾고 싶은 힐링 명소 호평

임실군이 오수면에 새롭게 문을 연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이 캠핑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힐링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운영을 시작하여 총 10개 팀이 캠핑장을 이용하며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정식 개장한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가족형 캠핑지로 알려지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라북도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의 캠핑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개장 직후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캠핑장은 캠핑카페 및 SNS 등으로 점차 입소문을 타며 이용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주말을 중심으로 예약과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방학과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가족 단위 이용객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무엇보다 캠핑장 내 대형견을 포함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이 캠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캠핑장 내 사이트마다 울타리 및 데크, 지붕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임실군이 오수면에 새롭게 문을 연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이 캠핑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힐링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전용 산책로와 운동장, 반려견 샤워 시설, 카라반 사이트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캠핑장 개장을 단순한 시설 확장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의 만족과 체험 중심의 콘텐츠로 승부할 계획이다. 향후 반려 문화와 지역관광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천천히 오래가는 캠핑장’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과 교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 중”이라며 “앞으로 캠핑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어 지속적으로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순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으나, 군은



사용처가 제한적인 읍·면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에 위치한 지점이며,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 지역은 △인계 △유등 △풍산면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현재 소진돼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성호 남원 부시장, 행정안전부 찾아 현안 건의

남원시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지역 현안 및 재난예방 특별교부세 사업 건의를 위해 7월 16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와 교부세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성호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을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성과 및 2026년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남원의 첨단 농생명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 선정을 건의하였다. 이어 교부세과를에서는 남원시 주요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 총 9건에 대해 사업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는 현안 사업 5건, 재난안전사업 4건으로 △국내 유일한 현대 숲길 목공예관 건립 10억원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원형 인재학당 건립 10억원 △주민 영농생활 보장을 위해 백령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10억원 △요천2교 보수보강 10억원 △산동 부절마을 상습침수구역 하수도 정비 8억원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 금액 등 사전 안내

남원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여기에 남원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주요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ts.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알림을 신청하면 7월 19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이번 알림서비스가 지원금액이 개인별로 다른 소비쿠폰 특성상 본인의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급 금액 변경자에 대한 추가 알림, 미신청자 및 미사용자에 대한 기한 알



림도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최근 정부 정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민비서 신청만 해도 본인의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며, 꼭 신청해 혼선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가짜 문자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는 클릭하지 말고 118 또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슬로건 공모 수상작 5건 선정

순창군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슬로건 중 수상작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류축제의 상징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발굴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총 600여 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상에는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가 선정됐다. 이 슬로건은 장류

의 고장 순창이 가진 고유의 전통과 색깔이 세계로 확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반영해 국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순창 장류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 등 총 4건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민의 장 후보자 공모

남원시는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고 영예의 상인 제31회 남원시민의 장 후보자를 오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공개 모집(추천)한다.

남원시민의 장은 총 6개 부문으로 △문화장(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분) △체육장(남원체육진흥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분) △효행장(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분) △봉사장(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분) △산업노동장(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분) △애향장(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



로 봉사한 분)으로 부문별 1명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 자격은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출신자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시청 간부 및 읍면동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통해 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의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남원시의회가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의료, 요양, 복지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안전망 강화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는 이미선 의원(사진)이 발의한 것으로, 지역 내 돌봄 대상자(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체계에 새로운 장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이미선 의원의 조례 제정으로, 맞춤형 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선 의원은 “남원시민 모두가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일제 점검 완료

임실군이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주소 정보 안내시설인 건물번호판 17,220개, 도로명판 4,289개, 기초번호판 571개, 사물주소판 220개, 주소정보안내판 9개의 일제 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소 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물로, 군은 주소 정보시설물을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 KAS(행정용 태블릿 PC)’라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각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위치의 적정성,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9월 말까지 손상된 시설물의 보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현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